

## 한독 협력과제 참고자료

(2022년 1월 21일, 변재선 책임연구원)

### 1. 한독 과학산업기술공동위원회 (2022년 7차 개최 예정년도)

참고: 제 6차 한-독 과학산업기술공동위원회 화상 개최 (2020년 6월 23일)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독일 연방교육연구부 공동 2년주기: **2022년 개최년도**

이날 회의에서는 양국 산업체와 연구소, 대학간 실용화 기술협력을 촉진하던 '2+2형 공동연구 프로그램'의 규모를 기존 연 15만 유로에서 20만 유로로 증액하고,

에너지 전환과 경량소재 분야에서 협력 연구를 추진하기로 합의. 또 독일 막스플랑크연구소를 활용해 기초과학 분야 학부생 연수 프로그램 확대 방안 논의

출처 : 동아사이언스 (<https://www.dongascience.com/news.php?idx=37661>)

양국 공동 관심 사항 충족 필요: 예: 수소 경제, 에너지 전환, 보건/환경 등

- Saarland 협력: 한독간 탁월성 분야, 글로벌 도전 대응 등 매칭 가능성 예시

1) HIPS: 차세대 항생제 개발 협력 (KIST 혹은 생명연 2+2) 가능성??

2) CISPA 사이버보안? (KAIST 2+2)

### 2. 연구재단/DFG 한독 특별협력사업 (2021-05-03 ~ 2021-08-27, 매년 공모)

세부사업명	지원 분야	사업 유형	선정 규모	지원 기간
한-독 R&D 네트워크 프로그램	전 학문분야	워크숍개최/ 연구자교류	10 과제 이내	1년
한-독 파트너십 프로그램(GEnKO)		연구자교류	3 과제 이내	1~3년
한-독 연구자교류 지원사업		연구자교류	초청/파견 각 5명 이내	1~3개월

협력기관명	담당자/부서	연락처
한국연구재단 (NRF)	김중덕 수석연구위원 국제교류팀	jdkim@nrf.re.kr Tel: 02-3460-5631
독일연구협회 (DFG)	Wagner Raoul, Program Officer International Cooperation	raoul.wagner@dfg.de Tel: +49 (228) 885-2217
독일학술교류처	GEnKO Martin Müller	m.mueller@daad.de

(DAAD)		Scholarship Programmes Asia and the Pacific	Tel: +49 (228) 882-8330
	연구자 교류	Miriam Kadow Scholarship Programmes Asia and the Pacific	kadow@daad.de Tel: +49 (228) 882-8643

**DFG: KIST 유럽이나 프라운호퍼연구소 등 정부출연연보다는 대학 지원 우선, 협력 대학 주관 효과적**

### 3. 2022 년 한국-독일 경제협력위원회:

#### 탄소중립·디지털화 관련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2022 년 1 월 13 일)

지난 13 일 대한상의는 독일연방상공회의소(DIHK, 이하 독일연방상의), 한-독상공회의소(KGCC, 이하 한독상의)가 함께 참여한 '2022 년 한국-독일 경제협력위원회'를 개최했다. 각 3 개 기관은 지난 2018 년 한국과 독일 경제계 간의 협력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했고 이후의 협력 방향을 논의하는 위원회 개최를 예정했다. 그러나 코로나 19 의 확산으로 위원회의 개최가 지연됐고 지난 1 월 13 일 온라인 화상회의의 형태 제 1 회 위원회가 진행됐다.

행사에는 대한상의 우태희 상근부회장, 독일연방상의 볼커 트라이어(Volker Treier) 대외대표, 한독상의 박현남 회장(도이치은행 대표)과 마틴 헨켈만(Martin Henkelmann)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위원회의 주된 논의 주제는 **디지털 전환의 중요성 그리고 향후 한국과 독일 간의 경제 협력 확대 전략** 등이었다.

출처 : 이코노믹리뷰(<http://www.econovill.com>)

**[파이낸셜뉴스]** 대한상공회의소는 독일연방상의(DIHK), 한독상의(KGCC)와 공동으로 '2022 년 한국-독일 경협위'를 13 일 개최

지난 2018 년 세 기관이 한국과 독일 경제계간 협력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서(MOU)를 체결한 이후, 코로나 19 사태로 개최가 지연되었던 회의가 처음 열리게 된 것이며 온라인 화상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정부측에서는 조현욱 주독한국대사, 미하엘 라이펜슈틀 주한독일대사가, 양국 기업인으로 천상필 삼성전자 상무, 임윤순 한국바스프 대표, 김판영 현대건설기계 상무, 이태연 삼보모터스 전무, 한순홍 한국디지털혁신협회장, 스테판 스프로이 엘링크링거코리아 대표, 데틀레프 리히터 TUV SUD 부사장, 토마스 슈미트 한국지멘스 디지털사업 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독일은 한국의 중요한 경제협력 파트너로, 디지털과 탄소중립을 국책으로 중점추진중이라는 공통점이 있다"면서 "오늘 회의는 포스트 팬데믹 시대의 양국 경제협력확대를 위한 양국 상의간 정기적 소통 채널 가동에 의의가 있으며, 이번 **디지털 전환을 시작으로 향후 수소산업, 바이오산업, 통상협력확대 등을 주제로 순차적으로 논의를 이어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독일은 스마트팩토리 사업, 히든챔피언 육성, 아우스빌등 직업훈련제도 등 한국이 배우고 싶은 사례가 많은 나라"라며 "포스트 팬데믹 시대를 대비하여 양국 산업간 교류활동은 물론, 기업간 실질적 협업도 같이 확대될 수 있도록 독일연방상·한독상과의 함께 협력의 물꼬를 터나가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디지털 전환 분야에 대한 중요성과 향후 한독경협 확대 전략에 대한 논의가 심도 깊게 이루어졌다.